

우상혁 뛴다...한국 육상 높이 뛴다

20일 세계실내육상선수권 출전 높이뛰기 '2022시즌 세계 1위' 메달 넘어 첫 우승 '위대한 도전'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은 20세기에 멈춰 있던 한국 육상을 21세기로 인도한 주인공이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시작한 우상혁의 세계 정상 도전은 2022년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2년 위대한 도전의 출발선은 현지시간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다.

우상혁은 한국시간 20일 오후 6시45분,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 출전해 한국 육상 새 역사에 도전한다.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건 2012년 터키 이스탄불 대회에 나섰던 이연경(허들 여자 60m) 이후 10년 만이다. 앞서 한국 선수의 최고 순위는 1995년 바르셀로나 대회 남자 400m에서 손주일이 달성한 '5위'다.

'2022시즌 세계 랭킹 1위' 우상혁은 손주일의 '한국인 최고 순위'를 넘어 한국인 최초 메달 획득, 나아가 우승까지도 노린다.

지난해 우상혁은 한국 육상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남겼다.

그는 도쿄올림픽에서 2m35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4위를 차지했다. 한국 육상 트랙&필드를 막고 있던 '올림픽 8위의 벽'을 깬 놀라운 성과였다.

1996년 이진택은 예선에서 2m28을 넘어 결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는 2m29를 뛰어넘어 8위에 올랐다.

도로 종목인 마라톤에서는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황영조(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에서 이봉주(은메달)가 메달을 땀다.

한국 육상은 1996년 이후 세계의 벽과 멀어졌지만, 우상혁은 힘찬 도약으로 굳게 닫혔던 세계 정상권으로 향하는 길의 문을 활짝 열었다.

올해 우상혁은 더 높이 날았다.

2월 6일 체코 후스토페체에서 2m36을 뛰어 자신이 도쿄올림픽에서 세운 한국기록(2m35)을 바꾸더니, 2월 16일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에서 열린 실내 육상대회에서는 2m35를 넘어 우승했다.

2022년 2m35 이상을 성공한 선수는 우상혁뿐이다.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 장마르코 램베리(이탈리아)가 우상혁의 경쟁 상대로 꼽히지만 올해 단 한 번도 공식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 경기력에 불음표가 달렸다. '현역 최고 점퍼' 이자, 도쿄올림픽에서 램베리와 함께 2m37로 공동 1위에 오른 무타즈 예사 바심(카타르)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우상혁은 여름과 가을에도 도전을 이어간다.

우상혁은 도쿄올림픽에서 세계선수권대회 기준 기록(2m33)을 통과해, 2022년 7월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개막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확보했다.

한국 선수 중 실외 경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경보 종목의 김현섭, 단 한 명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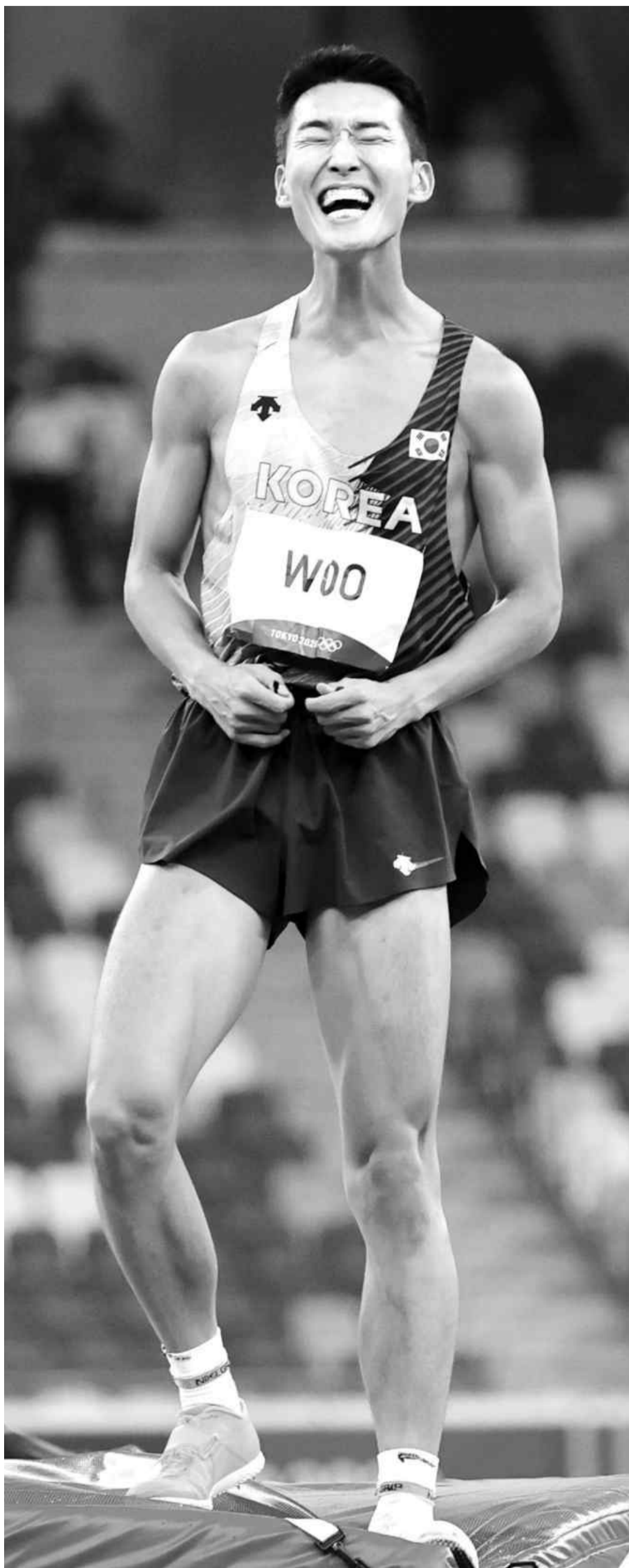
김현섭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km 경보 결선에서 6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이후 도핑 재검사에서 금지약물성분이 검출된 선수가 대거 나오면서 3위로 올라섰다.

오는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우상혁은 2018년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우상혁 덕에 한국 육상은 항저우에서 이진택(1998 방콕·2002 부산 대회 우승) 이후 20년 만에 남자 높이뛰기 금메달 획득을 노린다.

/연합뉴스



우상혁이 지난해 도쿄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39m 실패에도 "관심"이라고 외치며 경기를 즐겼다. /연합뉴스

맨유, 올 시즌도 빈손?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AT 마드리드에 0-1로 져 8강 좌절 리그컵·FA컵 32강 탈락 이어 정규리그 우승도 물 건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이하 맨유)가 유럽 프로축구 정상 등극의 꿈마저 깨져 올 시즌도 빈손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맨유는 16일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2021-2022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41분 헤닝 로지에게 헤딩 결승 골을 내주고 0-1로 졌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원정 1차전에서 안토니 엘랑가의 동점 골로 1-1로 비겼던 맨유는 1, 2차전 합산 점수에서 1-2로 밀려 8강 진출이 좌절됐다.

아울러 맨유는 올 시즌 '무관' (無冠)이 유력해졌다.

맨유는 이미 이번 시즌 리그컵(카라바오컵)과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에서는 32강에서 탈락했고, 정규리그인 프리미어리그(EPL)에서도 승점 50으로 선두 맨체스터 시티(승점 70)와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어 우승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승부가 갈린 것은 전반 41분이었다. 펠릭스의 힐패스를 받은 앙투안 그리에즈만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안 모서리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로지가 골 지역 왼쪽에서 머리로 받아 넣었다.

1차전에서 경기 시작 7분 만에 펠릭스의 헤딩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던 로지는 16강에서 나온 팀 득점에 모두 관여하며 8강행의 주역이 됐다.

맨유는 후반 들어 마커스 래시퍼드, 네마냐 마티치, 폴 포그바에 이어 에딘손 카바니, 후안 마타를 차례로 투입하며 만회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철벽 수비'를 뚫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사흘 전 토트넘 홋스퍼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3-2 승리를 이끌었던 맨유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이날 풀타임을 뛰었지만 침묵했다.

한편, 벤피카(포르투갈)는 아약스(네덜란드)를 제치고 대회 8강에 합류했다.

벤피카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크라위프 아레나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아약스를 1-0으로 눌렀다.

후반 32분 상대 오른쪽 측면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알렉스 그리말도의 크로스를 다윈 누네스가 골문 앞에서 헤딩으로 돌려놓아 아약스 골망을 흔들었다.

이로써 홈 경기에서 2-2로 비겼던 벤피카 합산 점수 3-2로 앞서 8강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연합뉴스

광주FC 엄지성·정종훈 대표팀 소집 훈련

21~29일... 아시안컵 엔트리 진입 기대

광주FC의 미래 엄지성과 정종훈이 대표팀 소집 훈련에 참여한다.

엄지성과 정종훈이 각각 U23대표팀과 U19대표팀의 호출을 받아 21일부터 29일까지 소집훈련에 나선다.

엄지성은 강릉으로 가서 대표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강원FC와 두 차례 연습경기도 예정됐다.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2022 AFC(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을 위한 어필 무대이자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엔트리 진입을 위해 황선홍 감독의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다.

엄지성은 광주를 상징했던 '엄두오'에서 이제는 남이 된 엄원상(울산)과의 경쟁도 펼치게 된다.

올 시즌 프로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또 다른 유스 정종훈은 울산으로 이동해 U19 대표팀 훈련을 소화한다.

정종훈은 엄원상과 엄지성을 이어 광주의 금호



엄지성

정종훈

고 계보를 잇는 '슈퍼유기'다.

올 시즌 졸업과 함께 프로무대에 뛰어난 그는 공간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로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발기술로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다.

연령별 대표팀을 지내며 국제무대에서도 경험을 쌓은 정종훈은 오는 9월 열리는 AFC U-20 아시안게임 예선을 위한 질주를 펼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러시아 축구 국제대회 출전금지 정당”

CAS, 러시아축구협 항소 기각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모든 축구팀에 대해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한 유럽축구연맹(UEFA)의 손을 들어줬다.

CAS는 15일(현지시간) “모든 러시아 팀과 클럽의 대회 참가를 금지한 UEFA 집행위원회 결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러시아축구협회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UEFA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

국가대표와 클럽팀의 대회 출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FIFA는 모든 러시아 팀의 출전 금지를 결정하면서 당장 오는 24일 러시아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플레이오프를 치를 예정이었던 폴란드에 “부전승”을 선언했다.

그러자 러시아축구협회는 자국팀과 클럽이 FIFA 및 UEFA 주관 경기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8일 CAS에 항소했다.

CAS는 러시아축구협회가 FIFA를 상대로 따로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심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주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2관 더 배트맨
- 3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블랙라이트
- 4관 스펜서
- 5관 문풀
- 6관 문풀
- 9관 더 배트맨, 스펜서
- 7관 씨네캐슬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메리 마, 안테벨룸
- 8관 씨네캐슬 극장판 주술사전 0, 언차티드, 유어 러브 송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커스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